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2022, 제16권, 제3호(통권 - 제42호), 1 - 17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s : Journal of Martial Arts
2022, Vol. 16. No. 3, 1 - 17
https://doi.org/10.51223/kosoma.2022.08.16.3.1-17

# 중국 근대 무술명가(名家) 왕자평(王子平)에 관한 문헌연구

YAO, YAO(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조성균(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무술 10대 명가(명인)로서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왕자평의 생애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그가 중국무술의 근대적 발전과 사회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자평은 하북성 창주의 무술 세가에서 태어나 무술명가(명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그는 태어날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을 지녔으나 후천적인 무술 수련을 통해 강한 근력을 소지하여 '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셋째,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하던 시기에 수많은 서구열강의 무사들과의 대결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넷째,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무술, 정치, 체육, 중의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구열강이 침략하던 시기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회현상을 만들었다.

주제어 : 중국무술, 왕자평, 생애사, 명가

* chosungkyun@khu.ac.kr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동양무술하면 중국의 소림사가 그려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무술, 무예, 무도라고 하는 문화의 발생지는 극동아시아 지역을 일컫는다(조성균, 2011). 이러한 무술은 호신, 건강, 신체단련은 물론이고 보건과 군사(軍事)에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동양의 문화와 사상이 서구의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면서 동양의 무술은 그 외연을 학문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서구 현대사회에서 먼저 동양무술에 관한 담론이 문화적, 교육적 가치 등을 내재한 학문적 소재로 부각 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1990년에 이르러 무학(武學)의 본질탐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이 시도된다(차명환, 2020).

중국무술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신체문화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무술은 광의의 의미로 전쟁을 멈춰 평화를 유지함으로서 인류가 만든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ZHOU WEINAN, 조성균, 2021).

여러 중국무술 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명가(名家)*가 있다. 중국문화의 특성상 무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명가(名家)라는 존칭을 부여하였다(文卒, 1984). 특히, 만청민국(滿清民國)** 시기에 사회불안과 민족자강에 대한 열띤 호소가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무술을 수련하며, 전국 각지에 명인들이 포진되어 “10대 무술 명가”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한어고, 2021). 세인들은 그 명가(명인) 중에 왕자평(王子平), 곽원갑(霍元甲), 엽문(葉問), 이소룡(李小龍), 동해천(董海川), 두심무(杜心武), 손록당(孙禄堂), 양로

* 가족 단위의 의미가 아닌 개인의 의미인 명인(名人)을 의미한다.
**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의 시기를 의미함.

선(杨露禅), 만뢰성(萬籟成), 채용운(蔡龍雲)의 명가들을 “10대 무술 명가”라고 부른다(中國十代武術家, 2016). 세인들이 말하는 10대 무술 명가 중에 곽원갑, 엽문, 이소룡 등은 영화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익숙한 무술인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 인물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생소한 무술 명가들이다. 왕자평에 관해 이군옥(李君玉), 한입명(韓立明), 조검영(曹劍英), 2014, 문졸(文卒), 1984, 양회중(楊懷中), 2004 등의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해보면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정확성에 기반하지 않은 기술들이 보이고 있어 질적 연구에서 행하는 다각검증법을 통해 사실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진흠림(陳鑫林,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왕자평은 평생을 각고의 노력으로 무술을 연마하였으며, 청말(淸末) 시기에 일명 ‘쿵푸의 왕(功夫之王)’으로 불리게 되었다. 왕자평은 장년 시기에 중국무술인과 겨루기 위해서 온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서구열강의 외국 무인들과의 대련(對鍊)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 무술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노년에는 오랜 세월 수련한 경험과 타국의 무인들과의 실전적인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을 연구에 적용하여 권술이십법(拳術二十法) 등의 무술 서적을 저술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무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신체문화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무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동양무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무술사 내지는 근원적인 해석으로 논쟁을 피하고자 한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재이,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무술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왕자평의 생애사를 고찰해 봄으로써 근대 시기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무술과 관련된 신체문화의 발전과 그 당시의 왕자평이 중국무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종래의 부족한 선행연구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 중에서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이용한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새로운 연구주제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문헌을 통해 기술된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과 해석을 내릴 때 적합한 방법이다(성태제, 시기자,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관련 저서, 신문기사, 인터넷사이트 등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문헌분석방법(Context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에는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folklore),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oral history), 생애사(life history research), 현상학(phenomenology),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적인 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복합적, 다층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둘째로 이들 질적연구방법들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융통성 있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로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피상적인 유형, 추세나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보다 강조한다. 질적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양화기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분석이 핵심적이지 않다(윤택림, 2003).

따라서 이 연구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연구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를 가

지고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맥락성, 구술성,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다(김영천, 한광웅, 2012). 역사학 또는 문화사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기술지 방법의 하나가 바로 생애사 연구이다. 생애사 연구는 특정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역사화 할 수 있는 연구방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역사화 할 수 있는 연구방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조성균, 2008).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왕자평의 생애를 통해 중국 전통무술의 신체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 Ⅲ. 연구결과

## 1. 무술세가(武術世家)*에서 성장하다.

19세기의 중국은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청일전쟁 등 계속되는 내외 환란으로 국력이 쇠퇴하며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중국인들은 동아시아의 환자 '동아병부(東亞病夫)' 라는 모욕적인 칭호를 들으며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다. 당시 개혁과 인사들은 중국 국력이 쇠퇴한 이유 중 하나로 문(文)을 중시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구식교육의 병폐가 지적되었다(노동호, 2020).

이러한 시기에 왕자평(王子平: 1881~1973)은 1881년에 무술의 고향 하북성(河北省) 창주시(滄州市)에서 태어났다. 이곳 사람들은 습무성풍(習武成風)**의 성향

* 중국에서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무술 가족 단위를 무술세가라고 표기한다.

이며, 역사적으로 ‘소양산(小梁山)*’ 이라는 찬사를 받았다(周簡段, 2018).

왕자평은 무술세가(武術世家)에서 성장하였고, 조부는 ‘번강자(翻杠子)**’ 로 유명하였다. 부친은 덩치가 크고 팔 힘이 지나치게 강력하여 ‘조각박왕(粗胳膊王)***’ 이라는 명예의 호칭을 받았다. 왕자평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유명한 무술 명인이었지만 집안 살림살이는 여전히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주이자 아들인 왕자평만큼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무술 명가 집안이지만 왕자평이 무술을 수련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왕자평의 모친은 무술 수련에 대한 자식의 열의를 보고 지지를 하게 되었고, 가문의 무술을 수련하게 되었다(張工, 2008).

왕자평이 처음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린 나이였으며, 작은 체구에 신체적으로 약한 몸이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스승이 없었다. 이는 그가 무술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에게 “얻어터지기만 하는 나무토막 같은 놈(挨打的木頭)” 이라고 평하는 기록이 보인다(李君玉, 韓立明, 曹劍英, 2014).

이에 대한 양회중(楊懷中, 2004)의 武壇二王 王子斌, 王子平(무단이왕 왕자빈, 왕자평) 연구에 의하면 “주변에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왕장평은 무술 수련에 대한 깊은 열의를 보이며 홀로 구덩이, 도랑 등을 파면서 체력을 증가시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멀리뛰기 등 현대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신체단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시켰다” 고 했다.

14세에 왕자평은 이미 ‘도립자세(倒立)****’ , ‘강자(杠子)*****’ , ‘매화말뚝(梅

** 무술의 수련이 민속화, 대중화를 되는 것을 의미한다.

* 1983년 출간된 <滄州市地名志(창주시지명지)>에 따르면 창주마을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의연하게 저항하는 성향이 짙으며, 관헌의 억압에 저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당시의 이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소양산'이라는 칭호가 있었다. 여기에서 양산은 <수호지(水滸誌)>의 주요 배경이 되는 습지대를 의미하며, 현재 중국의 산동성에 위치하고 있다.

** 평행봉, 중국 북방 농촌에서 성행하는 철봉에 가까운 체육활동이다.

*** 무술로 단련되어 팔뚝이 굵어 붙여진 명칭(별명)이다.

花椿)*’ 등 기술을 습득했다. 더 나아가 성장기 시기의 왕자평은 이경(二更)**에 일어나 별빛을 받으며 이른 새벽의 적막하고 고요한 환경에서 정신을 집중하며 무술을 연마하거나 오경(五更)***에 일어나 새벽이슬에 젖은 대지를 밟으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호흡하고 해가 솟아오를 때까지 무공을 연마하였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들이 말하는 ‘북두공(北斗功)’과 ‘이수공(露水功)’이었다. 성인이 된 왕자평은 민간에 전해진 장권(長拳), 홍권(洪拳), 사권(查拳), 차벽괘(且劈掛), 형의(形意), 태극(太極), 삽화(插花), 팔괘제문(八卦諸門) 등을 수련하였으며, 병장기인 창(槍), 도(刀), 검(劍), 곤(棍), 부(斧), 월(鉞), 구(鉤), 차(叉)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張工,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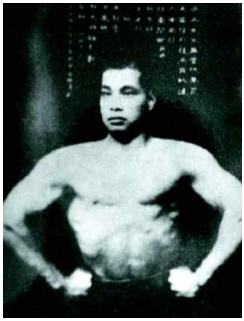

그림 1. 왕자평 장년시기****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 왕자평은 중국무술의 역사에서 명가로서 성장하는데 가문의 환경적인 영향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신체조건이 남보다 부족하지만, 당시 유명한 무술세가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으며, 무술에

**** 물구나무서기를 의미한다.
***** 평행봉, 중국 북방 농촌에서 성행하는 철봉에 가까운 체육활동이다.
* 말뚝 위에서 이동하면서 수련을 형식이 붙여진 명칭이다.
** 밤에 21시에서 23시 사이이다.
***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이다.
**** 자료출처: 康凤元, 康星(2021). 千斤神力王---王子平. 武当, 373, p39

대한 몰입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중국무술 발전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기여를 했다.

## 2. 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으로 불리우다.

1890년,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던 시기에 왕자평은 “권비(拳匪)*” 로 의심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향인 하북성(河北省) 창주(滄州) 떠나 제남(濟南), 청도(靑島), 북경(北京) 등 지역으로 피신했다. 당시에 하북성에는 의화단원이 많았으며, 의화단원 중에서는 무술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의화단 운동은 외세의 침략에 무술을 수련하여 외세에 대항하려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인해 왕자평 또한 “권비(拳匪)” 로 의심받게 되어 피신하게 되었다. 왕자평은 피신하는 일정 속에서도 많은 무술명가를 방문하여 경험을 넓혀갔다(王海潮, 2015). 그는 이슬람 사원인 제남 모스크(濟南淸真大寺)에서 아랍어와 한자를 공부하며 무술 명가를 탐방했다. 그동안 왕자평은 제남(濟南) 지역 사권(查拳)의 명가 양홍수(楊鴻修)를 통해 무술을 배웠다. 양홍수의 지도로 왕자평은 사(查), 활(滑) 포(炮), 홍(洪) 등 투로(套路)**와 발차기 기술이 크게 성장하였다. 무술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왕자평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많은 무술 명가들의 장점을 얻었다. 그의 강한 의지와 겸허한 구학 정신으로 태극(太極), 팔괘(八卦), 홍권(洪拳), 소림(少林), 팔극(八極), 사권(查拳), 벽괘권(劈掛拳) 등 민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무술을 수련했다(郭志禹, 1996).

왕자평은 본래 태생적으로 약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한쪽 팔로 50kg의 돌을 들 수 있고 양팔은 150kg의 돌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다리는 천근을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 의화단원의 속칭.

** 중국무예의 투로는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내포된 시연이나 수련 그리고 경기 등을 위한 도수무예와 병기무예의 기예이다.

“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 으로 소문이 났다(沙學周, 2009).

앞서 언급했던 서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무술인이 국가를 위해 나서서 대항하였지만 청(清朝)의 부패로 민간 무술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왕자평은 피신하였지만, 무술에 대한 집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그의 집념은 근대 시기에 중국무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를 형성시켰다.

## 3. 애국정절(愛國情節)을 고취하다.

보통 중국의 무술고사(武術古史)의 내용들이 그러하듯이 약간은 신화적인 그리고 동화적인 내용의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질적연구의 문헌고찰의 경우 제한적 선택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화 과정의 차원적 접근에서 기존의 기록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일반화라는 이해적 접근을 선택하고자 한다.

1919년 일본 간토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부 행사가 열렸으며, 청도(青島)에서는 무술공연 모금행사가 열려 많은 관객과 무술 단체가 참여했다. 왕자평도 공연을 참석하여 대력개석(大力開石)*, 뉴만철조(扭彎鐵條)** 등의 시연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왕자평에 대한 여러 일화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잡지 또는 논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먼저 청도의 미국학당에서 스포츠를 지도하던 미국인 아라만(阿拉曼)***은 왕자평이 공연하는 중에 직접 무대에 올라와 도전을 신청했다. 왕자평은 예를 갖추어 악수하지만 의외로 아라만이 손을 뻗어 악수하는 동시에 힘이 썼다. 그는 그러한 힘을 느끼고 바로 솔교(摔跤)****를 이

* 맨손 힘으로 돌을 깬다.
** 맨손 힘으로 쇠꼬챙이를 구부린다.
*** 미국 스포츠 지도자 이름이다.
**** 중국 씨름.

용하여 아라만을 뒤로 나자 빠뜨린다. 그는 다시 일어나 재공격을 하였으나 금나술(擒拿術)*로 아라만을 제압하게 된다(張工, 2008). 또한 다음 날 독일의 헤라클레스 불리우는 코지메르**가 대련을 신청하였고 왕자평은 승리하게 된다. 이후 코지메르는 왕자평에게 중국무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월 300원(圓)***의 수련비용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게 된다(李君玉, 韓立明, 曹劍英, 2014).

그 이후에 왕자평은 일본의 유도가 미야모토와 대결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고 벗어나기 위해 경찰들을 이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지게 되면서 상해를 입히게 된다. 이 사건으로 북양정부는 왕자평을 수배하였고, 왕자평은 상해(上海)로 피신하였다. 이후 상해에서 "자평 진료소"를 열어 질타손상(跌打損傷)****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무술을 수련했다(楊懷中, 2004).

그림 2. 왕자평*****

또한 1921년 미국인 설리번은 상해를 찾아 만국경무장(萬國競武場)을 내걸고 연무대를 만들어 결투 이벤트를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295파운드의 미국인

* 대표적인 근접박투 기술이고 손으로 상대를 잡아 방어하고 반격하는 기술이다.
** 독일 헤라클래스의 이름.
*** 중국에서의 화폐 단위.
**** 맞거나 부딪쳐 생긴 상처.
***** 자료출처: 康凤元, 康星(2021). 千斤神力王---王子平. 武当, 373, p35

조지, 305파운드의 독일인 피터 등과 함께 경기를 치렀다. 동시에 그들은 한 대 때리거나 꺾으면 두둑한 상금을 받는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국민들은 상해 무술계에서 국가를 위해 싸울 필요성을 강조하며 돈을 기부했다(海鉑, 2015).

상해 무술계는 왕자평을 추천하여 대결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경기 상황 속에서 설리번은 비겁한 행위를 시도하였고, 무술고사(武術古史)에서 보여주는 대부분 결과가 그러하듯이 왕자평은 설리번의 기습행위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승리하게 된다. 이후에 왕자평은 지속적인 경기를 원하나 만국경무장(萬國競武場)은 모든 경기를 취소하게 된다. 이후에 부담을 느낀 설리번 일행은 야반도주했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觀史行天下, 2021).

중국의 무술고사들이 어느 정도 전설 같은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당시 근대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인 1917년 즈음 왕자평은 외국인 무사들과 대결을 통해 중국무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자평은 미국 스포츠 지도자 아라만, 일본 유도가 미야모토, 독일인 코지메르, 미국 설리번 등과의 대결에서 순차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사회적 희망을 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당시에 이는 중화민족에게 전통무술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4. 근대 무술에 대한 영향력 미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후 왕자평은 중국 전국체육회 위원, 전국정협(全國政協)* 위원, 상해(上海) 이슬람교회 부주임, 상해 중의학원 부상연구실장, 전국레슬링협회 위원, 상해 중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중국 설립 이후 당(黨)**과 정부는 무술이라는 소중한 민족적 유산을 중시해

*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위원.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무술이 채택되었다. 전국적인 무술경기가 열려 각 무술유파 간에 교류하고,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실전되어진 오래된 무술을 발굴하였다.(烸鉑, 2015).

1958년 전국무술협회가 창립되어 왕자평은 제1회 전국무술협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59년에 제1회 전국체전 열렸으며 이때 무술대회 심판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烸鉑, 2015). 왕자평은 평생을 통해 무술을 수련하고, 무술 정신과 애국정신을 융합해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근대 시기의 무술문화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무술 명가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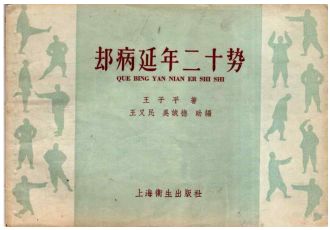


그림 3. 《거병연년이십세(祛病延年二十勢)》*

그림 4. 《권술이십법(拳術二十法)》**

또한 왕자평은 만년에도 지속적으로 무술을 연구하고, 자신의 무술특성과 무술계에서 보고들은 무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권술이십법(拳術二十法)》을 창작했다. 《권술이십법》에 기술한 주요 내용은 투로(套路)는 나한권(罗汉拳), 홍권(洪拳), 육합권(六合拳)을 통합한 권법으로 구성되었다. 손바닥(掌,) 주먹(拳,) 팔꿈치(肘), 어깨(肩), 허리(腰), 무릎(膝), 발(足)등 각 신체 부위의 특성을 따라 종합하여 실용적인 권법을 제시하였다.

** 중국 공산당.
* 자료출처:《거병연년이십세(祛病延年二十勢)》1958년, 上海卫生出版社.
** 자료출처:《권술이십법(拳術二十法)》1956년, 人民体育出版社.

이 무술 저서에서 왕자평은 무술계에서 실전될 수 있는 무술의 기술체계를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무술체계를 기술하였다. 일부분의 권(拳)종에 대해서는 문자로 기록하여 후학들에게 무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陳鑫林, 2013).

한편, 왕국영, 오성덕(王菊榮, 吳誠德, 1992)의 저서 “왕자평과 무술(王子平與武術)” 에 의하면 왕자평은 유명한 무술가이자 의학에 독특한 공헌을 한 의학자이다. 과거 또는 현대 무술가들은 수련과정 또는 대련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는 수년간의 무술 훈련과 무술경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는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정리했다. 그의 치료법의 특징은 금나(擒拿), 점혈(點穴), 근골격리(梳理筋骨) 등을 융합한 것으로 무술과 의학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무술 외상 처리에서 한약의 사용법에 관심이 많아 수십 년 동안 진지한 탐색과 끊임없는 수집을 통해 질타손상 등 외상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단약(丹藥)을 만들었다. 수년간의 치료 경험이 축적되어 왕자평은 중의학 전문서적《거병연년이십세(祛病延年二十勢)》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사점으로 왕자평은 무술계뿐만 아니라 중의학계에서도 명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자평은 노년 시기에 자신이 평생 수련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무술 수련법과 중의학의 주요한 내용들을 서적으로 발간하여 후대에 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중국무술과 중의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게 된다.

# Ⅳ.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중국무술 10대 명가로서 무술의 근대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왕자평의 생애사를 고찰하여 중국무술의 근대적 발전과 왕자평이 무술을 통해 중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19라는 제한적인 시기적인 문제와 국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인 일반화를 제시한다. 중국무술의 특성상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내용의 자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중국 내의 자료검색을 통해 근대화 시기 중국무술의 10대 명인 중 한 명인 왕자평의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자료로 인해 고찰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왕자평의 생애를 통해 중국의 전통무술의 신체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왕자평은 하북성 창주의 무술세가에서 태어나 무술 명가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그는 태어날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을 지녔으나 후천적인 무술 수련을 통해 강한 근력을 소지하여 “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 이라고 불렸다. 셋째,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하던 시기에 수많은 타국의 무사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무술, 정치, 체육활동, 의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평생 무술을 수련하면서 무술정신과 애국정신을 융합하여 근대 시기에 사회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현상을 만들었다.

왕자평의 생애는 중국 근대사회에서 무술적 행위라는 단순한 신체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의 격변기에 애국 사상과 신체문화의 무술적 행위를 결합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애국심 고취 현상이 나타났다는 시사점이 있다.

## 2. 제언

본 연구는 중국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나타난 무술명가 중 대표적인 인물인 왕

자평의 생애사를 고찰하였으며, 그의 무술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애국정절을 발견하였다. 중국무술이 동양 신체문화 중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써 근대 시기에 무술명가로 인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중국의 10대 무술명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도 동양체육사를 연구하는 학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근현대로 넘어는 과정에서 무술에 관련된 자료들이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자료들이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제한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2차자료의 수집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설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중국무술 전문가와 왕자평 후손들의 심층적인 인터뷰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되리라 본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후 국가 간 연구가 가능해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경로의 접근을 통해 자료의 신빙성과 과학적 접근의 보완에 대해 제언한다.

## 참고문헌

김영천, 한광웅(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노동호(2020). 근대이후 중국의 우슈 학교체육 도입과 변혁에 관한 고찰. **무예연구, 14**(1), 1-20.

성태제, 시기자(2007).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 출판 학지사.

윤택림(2003).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6**(1), 107~124.

장재이(2000). 근대이후 중국무술발달사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2**(1), 15-30.

조성균(2008). 현대 택견의 논쟁거리 전통성 : 송덕기와 신한승의 갈등원인과 해소.

**한국체육사학회지, 13**(1), 31-47.

조성균(2011). 무예의 터득과 체득 구조의 동양적 접근. **한국체육철학회지, 19**(3), 1-17.

주위남(ZHOU WEINAN), 조성균(2021). 중국무술 미종권(迷宗拳) 무술가 곽원갑(藿元甲)에 관한 연구-정무체조회(精武體操會)를 중심으로-. **무예연구, 15**(2), 1-20.

차명환(2020). 전통의 의미로 본 태권도사. **무예연구, 14**(3), 1-17.

康凤元, 康星(2021). 千斤神力王---王子平. **武当, 373,** 35-39.

郭志禹(1996). **中華武林故事.** 少年兒童出版社

李君玉, 韓立明, 曹劍英(2014). 近代河北武術家王子平的愛國情懷探析. **蘭台世界, 13,** 91-92.

文卒(1984). 武術家的榮譽稱號. **北京體育, 5,** 42.

沙學周(2009). 山東青州武林舊事. **少林與太極, 2,** 57-58.

楊懷中(2004). 武壇二王——王子斌, 王子平. **回族研究, 3,** 87-89.

王菊榮, 吳誠德(1992). **王子平與武術.** 上海教育出版社.

王子平(1956). **拳術二十法.** 人民体育出版社.

王子平(1958). **祛病延年二十勢.** 上海卫生出版社.

王海潮(2015). 青島國術館英豪傳. **春秋, 3,** 25-29.

張工(2008). 千斤神力王的故事. **精武, 1,** 30-30.

陳鑫林(2013). “功夫之王” 王子平對武術的貢獻. **蘭台世界: 上旬, 8,** 119-120.

焦克儉, 張善武, 東長福, 趙之勝(1983). **滄州市地名志.** 河北省滄州市地名辦公室

烸鉑(2015). 爲中華武術揚名的一生——記武術名家王子平. **檔案天地, 4,** 39-42.

한어고(2021). **중국에 실존했던 무림 고수들은 누구?** https://hanyuku.tistory.com/394

中國十代武術家：https://www.sohu.com/a/114739144_476550

觀史行天下(2021). **武學大師王子平: 曾任武協副主席, 打敗外國大力, 人稱千斤王.** https://baijiahao.baidu.com/s?id=1691584103459753030&wfr=spider&for=pc

周簡段(2018). **武術之鄉滄州: 有古至今的習武技擊之風!** https://baijiahao.baidu.com/s?id=1607484271988142030&wfr=spider&for=pc

## ABSTRACT

### Literature Review on Wnag Zi Ping, Chinese Modern Martial Arts Master

YAO, YAO · Cho, Seong-Gyun (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effect Wang zi ping, one of top 10 Chinese martial arts masters, had on the modernistic development of Chinese martial arts and social culture, by considering the life history of him who made a huge contribution to the moderniz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ne of qualitative study methods,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ang zi ping was born from a martial arts family located in Changju, Habuk province, so he had the environment factor which encouraged him to become a martial arts master. Second, although he was innately weak when he was born, he acquired strong muscles by training martial arts, so he was called ‘Sinryeokcheongeunwang(King with Strong Muscles)’ Third, he played a role in encouraging patriotism, by having a showdown with a lot of warriors from foreign countries, when, Western powers invaded China. Fourth, he performed a variety of social activities in relation with martial arts, politics, sports activities and medical science, after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especially, he encouraged patriotism in the modern society, by combining the spirit of martial arts with patriotism, while training martial arts for a lifetime.


Key words; Chinese martial arts, Wang ji ping, life history, great master

논문투고일 : 2022.06.30.
심 사 일 : 2022.07.27.
심사완료일 : 2022.08.05.